

제33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7월9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 | | |
|-----------------------------------|---|
|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 2 |
| 가. 환경부 소관 | |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
| 다. 기상청 소관 | |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
| 가. 환경부 소관 | |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
| 4.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

(15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현안질의 그리고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8.1% 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126만 2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미혼 단신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 155만 339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선순

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예년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청년 알바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대학생 알바생들이 들려주는 노동 현장은 정말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만난 알바생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에 심지어 불과 세 달 전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에서 계약을 할 때 1년 동안은 인턴 같은 식으로 한다 그래서 시급 4000원을 받고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 본인 소속과 이름을 대 가면서 대학생 알바생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대학생,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또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과 더불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처리 시점과 사업 편성 채원 방안 마련 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추경 요건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등 꼼꼼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먼저 의결한 후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

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고용노동부 소관

(15시13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인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인영 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29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금은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누락한 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집행한 유해화학물질 테러·

사고 대비 사업 그리고 물산업 기반 구축 사업, 저탄소차협력금 사업 등은 이러한 집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를 임의로 집행한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과 시험연구비를 홍보비로 집행한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한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자생종 발굴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굴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에 대한 수계관리기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4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취업연수 비용을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인턴정보망 통합구축사업비로 집행하여 해외취업연수 경비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산재병원 지원사업은 의료인 법정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산재병원에 대하여 필요 인력을 충원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인력 지원,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도 예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

카데미 운영 지원,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해외인턴사업 등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취업률 등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년취업인턴제, 근로감독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지원 단기간 형평성 확보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7건, 제도개선 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남은 장비를 교체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사업과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과다하게 이월한 지진 조기경보 구축 사업은 이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고 있는 세입예산,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낙찰차액 등을 활용해서 집행한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사업 및 소속기관 청사시설 관리사업 등은 이런 집행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 심사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유형별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사전검토하고 꼼꼼하게 집행·관리하여 이월과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 정산되도록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개·보수를 촉진하고 비점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이인영 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상생을 이루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점점 보완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및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상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인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상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개도국 기상업무 수행 기반 구축사업 등 10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의·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기상기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시25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상청에는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청장님께서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환경질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대비 606억 원 증액한 5조 1275억 원으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받아 충당하며 세출도 606억 원만큼 증액한 5조 7797억 원으로 하면서 증액분으로 3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분야 계속사업 중에서 편성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2015년 내에 완공 가능한 하수관거 23개소와 농어촌마을하수도 9개소에 5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두 차례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89곳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면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으로 인하여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파는 경기후행적 성격을 갖는 고용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1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8921억 원 규모의 고용부 사업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용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청년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확충하였습니다.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대학생들을 융합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취업률 등 성과가 좋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학습병행 사업도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청년고용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 관련된 상담과 알선을 강화하고 양질의 해외 구인처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K-Move 센터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대응하고 구직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증액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마련한 고용부의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 어려움을 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창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한창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편성 방향, 총괄 현황, 주요 내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으로서는 높은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으로 청년 등의 고용 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메르스 여파로 경제·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사업장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 확대,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경 편성의 기본 방향은 청년 고용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 청년 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며, 메르스로 인한 실직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4쪽, 셋째 총괄 현황입니다.

2015년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규모는 8971억 원으로 당초 예산 15조 5110억 원의 5.8%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조 8978억에 720억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은 당초 7조 7654억에 825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산안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당초 2746억의 예산에 644억을 증액해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에 각 3만 명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당초 168억의 예산에 9억을 추가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2만 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당초 301억 예산에 34억을 추가해서 인문계 전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추가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취업지원은 당초 356억 예산에 32억을 증액해서 취업률이 높은 K-Move 스쿨 장기 과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첫째,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에 신규로 206억을 편성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당초 기금에 166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48억을 추가해서 앞쪽에서 보고드린 예산과 함께 2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1857억의 당초 기금 예산에 945억을 추가해서 산업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2만 6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은 당초 812억에 204억을 추가해서 일·학습병행 지원 대상 기업을 당초 3300개에서 47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당초 58억에 13억을 추가해서 기존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청년고용플러스센터로 개편해서 각 부처의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윈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개소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사업은 당초 46억 예산에 20억을 추가해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진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학과별로 특화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용센터인력지원사업은 당초 526억에 14억을 추가해서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와 연계해서 고용센터 인력 150명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당초 312억에 137억을 증액해서 7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는 당초 4조 1084억 예산에 6565억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구직급여의 평균 지급액 인상과 신규 신청자 확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지막 쪽의 사업별 주요 변경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야 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공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경우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으로부터 210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서 1쪽,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 K-Move 스쿨 장기 과정 250명을 증원하고 국내외에 K-Move 센터 6개를 확대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3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기 훈련의 경우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

에 따라 금번 추경으로 반영된 장기 과정 예산 20억 원을 연내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목표 인원을 본예산 대비 6만 명을 증가시키고 관련 예산 64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증액 필요성은 이해되나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사업 참여 인원이 계획 인원 30만 명 대비 32.8%인 9만여 명에 불과하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기금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 사업 물량을 2만 명 증액하였는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하여 악화된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의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본예산에 비하여 57%의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연내 집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센터 인력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상담원 인력 증원 비용을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직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적정 상담인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적 인력 충원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의 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사업은 금년 6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신규 반영된 사업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아침에 결정이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7.1% 인상했던 데 비하면 1% 더 올린 셈인데, 실은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었 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었고 또 고용노동부장관도 최저임금 격차 해소분 반영 해야 된다고 말씀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이 정도 인상으로는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오히려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위축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실은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일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각종 일자리 사업에 붓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보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래야만 또 저소득층 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그거는 부자들은 돈이 더 생기면 갖다 쌓아 놓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은 돈이 좀 더 생기면 평소에 부족했던 생활비를 채워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OECD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32.6%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또 그 정해진 것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최저임금의 소득 이상의 인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옆에서 보면. 부의장님 강조해 주신 격차 해소라는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작년에 비해서 1%를 올렸지만 지금 협약임금 인상률이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렸지만 주변의 동료들은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8.1%를 올리고 나니까 그 영향률이 18%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문제도 부의장님 강조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고용과 소위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고려한 고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지켜가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각종 고용보험의 지원제도를 사업주 지원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그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새로 채용하거나 일자리를 보전할 때 지원제도를 더 꼼꼼히 챙겨서 기업도 이렇게 지킬 수 있고 근로자도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최저임금에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또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6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래서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그런 공장의 화재, 폭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PSM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공정안전관리등급?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거기서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인데요, 한화케미칼이.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돌아봤으면 싶은 게 PSM 등급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수업체는 4년에 한 번 점검을 받는 특전을 주어서, 말하자면 점검을, 검사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2013년에 한화가 우수등급을 받고 이후로 점검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검사나 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적절한 건가,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 것인가? PSM 등급이 높다고 해서 이런 검사를 면제해 주기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메인 공정 관리의 말 그대로 제대로 해 가는데 부수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것도 공정이 돌아가고 나오는 폐수를 집합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과정에, 소위 폐수집수조에서 용접하다가 터진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 공정들, 예를 들면 폐수처리시설이랄지 환경정화시설이랄지 또는 열원공급시설 이런 부수 시설에 대해서도 가스나 폭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과 예방장치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다음에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이번 추경이 실은 메르스와 가뭄에 대비한 그런 추경으로 이렇게 특별히 마련하는 건데, 환경부 추경 예산은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국립공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한 605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메르스나 가뭄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업인데 이걸 추경으로 특별히 편성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뭄 때문에 추경 하는데 비 많이 올 때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그런 문제……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뭄이면 물이, 식수가 줄어들니까 상수도를 정비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 연내 집행이 가능하나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급한 불 끄는 게 추경인데요, 노동부 추경안 중에서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지난해 과다 불용 사업이었어요, 지난해 15.5%가 불용이었던 거예요, 작년 예산 중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특히 K-Move 스쿨 사업은 6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20.3%밖에 안 돼요. 20.3%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도 다 쓸

수 있을까 의문인데 왜 추경을 요구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먼저 환경부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메르스나 가뭄하고 직접 관련은 적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들이 대개 지역의 업체들이 실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 사업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뭄과 관련해서 상수도 분야는 사실은 저희도 희망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금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연구하기 위해서 2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재정당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환노위에서 이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예.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이번 추경안 편성 사업 중 하수관거 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대규모 추경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이번 추경에도 있었던 하수관거 사업이 그 당시에 도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2013년 당시 추경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34개였는데, 추경으로 추가 증액된 예산을 지자체에서 모두 집행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실제 집행률은 99%고요, 한 1% 정도가 지자체 자체에서 이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34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예산 집행을 모두 하지 못했고, 특히 세 곳은 편성된

예산의 절반가량만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추경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추경 자체만 하면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마 본예산 쪽에서 이월된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일 겁니다.

○**朱永順 委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도 충북 옥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고작 17.9%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부분만 봤을 때는 집행이 모두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집행이 잘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기준은 당초에 내년도 완공인 사업들을 금년으로 당기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 집행률이 현재 기준으로 50% 내외에 달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주변 지방비 편성하고 또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을 지자체하고 수차례 확인한 다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편성된 지자체에서 지방비 재원 조달이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실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국립공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중 자동기상관측시설로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동기상관측시설 44개고요, 재난예경보시설 383개 이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국립공원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총?

○**환경부장관 윤성규** 추경은 자동기상관측시설 12대 하고 금년도 본예산이 2대 해서 총 14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기상청에 확인했더니 설치된 기상관측시설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활용 여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된 관측 시설로부터 자료 수집률을 기상청으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1월에 55.8%, 6월에는 90.4%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정상 자료율이 크게 떨어져 기온은 20%대고 일사나 일조는 아예 정상 자료 수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관께서 국립공원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의 유지 보수를 많이 챙기셔서 설치된 시설에서 수집된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朱永順 委員**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 지원사업을 추경예산 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해 본 사업의 전체 예산을 388억 5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 사업의 추경 사유가 K-Move 스쿨 장기과정 증원과 K-Move 센터 확대에 따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K-Move 스쿨 사업의 경우 해외 취업률이 58.4%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과정 수료가 74.2%로 단기과정에 비해서 성과가 좋아 장기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 하지만 추경예산은 정규예산과 달리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올해 6월까지 K-Move 스쿨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20.4%입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본예

산 185억 중 37억 7000만 원만 집행되며 집행실적이 20%에 머물러 저조합니다.

2014년도 결산을 의결했지만 결산소위에서도 과다 불용 발생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만큼 추경사업까지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K-Move 스쿨 장기과정 예산 20억 원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朱永順 委員** 다음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64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업의 예산은 3389억 9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 편성 시보다 6만 명 늘어나 36만 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율이 77.5%에 불과했고 불용액도 145억 120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2014년 성과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올해 본예산은 30만 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5월까지 참여율이 32.8%에 그치고 예산 집행률도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예산도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까지 모두 소진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K-Move 스쿨 경우는 현재 예산 집행은 20.4%지만 지금 많이 모집을 해 났습니다. 모집해 놓은 이 청년들에게 훈련을 시작하면 집행될 수 있고, 또 더더욱이나 장기과정이고, 앞으로 추경에서 편성한 부분은 지방의 거점대학, 정말 괜찮은 대학들이 장기과정으로 훈련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취업성공패키지 부분은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기 위한 애절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6만 명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1, 2월에는 저희가 청년을 하고 작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탁사업장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하고 청년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 위탁사업장 변경 때문에 1, 2월에는 준비 때문에 못했구요, 3, 4월의 주어로 보면 금년 물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에 편성된 6만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인력 147명까지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가능하면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을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낱알이 다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월 21일부터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2012년 구미 불산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지요. 휴브클로벌(불산 사태) 사고 이력인데요. 저 밑에 빨간색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정보입니다.

휴브클로벌 직원들이 불산 적재 탱크로리(20톤)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불산 누출, 5명 사망 그리고 554억, 이게 경제적 피해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부지원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건의 이력, 정보라고 하기에 너무 초

라하고, 이 정도의 공개를 하려고 홈페이지 운영한다는 것은 본 법의 취지에 전혀 현재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사 검색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고 상세정보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읽어 드려야겠습니다.

왼편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인적상해’ 그리고 두 번째 ‘물적상해’, 밑에 ‘상세내용’ 이렇게 세 가지 써 있는 것인데요.

일단 환경사고이기 때문에 인적상해, 물적상해가 아니라 사건에 따른 환경피해도 당연히 내용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휴브클로벌 사고라고 하면 공단 주변에 어떤 환경피해가 있었나 이것까지 사고 이력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상세내역이 다 빠져 있는데 여기에는 충실히 내용을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열흘 남짓 남아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게 다 환경부에서 내용을 넣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용들도 상세해져야 될 것 같고 또 항목들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가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 3단계의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조사까지 실시했고 올 초에 조사가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만 해도 수천여 명에 이르고 그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다, 그 후에 어떤 유희장에 같은 것들이랑 제가 보고서를 보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저는 정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이게 EU에서 운영 중인 eMARS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대기오염이라든가 땅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내용을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스템 만들 때 eMARS를 참고해서 만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아직 시행일이 남았기 때문에

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 추진을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았던 것 같고요, 이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시범운영 중에 제가 본 것이니까, 혹시 진행상황상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인지 이런 정황을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고용부장관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사건 보고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고 우리 상식을 너무 넘어서는 사건이라 가지고, 저는 조기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특전사나 경찰 출신들을 자동차부품회사에 신규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복수노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복수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적절히 개입해 가지고 다행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사한 이런 분들이 퇴사하기로 조치가 잘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 상황을 공유를 드리면, 퇴사는 됐는데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해당 지청에서는 상황 파악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이분들을 퇴사는 시켰지만 기숙사에 여전히 살게 하고 있고 회사 식당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기숙사에 살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거처를 옮겨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동부가 더 적극 개입해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존 금속노조에서 이런 기업노조의 내부 현금흐름을 보여 주는 장부 이런 것들을 내부 제보자로부터 입수해서 지청에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합니다.

거기까지는 장관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보면……

이게 기업노조의 장부인데 별칭을 ‘가계부’라고

해 냈고요. 좀 잘렸지만 원편이 5월의 수입인데 ‘특별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씩 두 번 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다 십시일반 모은 노조의 운영자금이나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만 원씩 이렇게 갑자기 목돈이 생겼고 또 5월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기업노조와 기존 노조간에 물리적 충돌들이 일어나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회사 등 부당한 지배·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고, 이런 자료가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제출 후에 수사에 변동이 없고 기숙사에서는 퇴거하지 않고 있고, 이런 현장 상황이 아주 담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추가 자료에 대해서 기존 노조들은 수사가 약간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왜 기업노조의 통장이나 장부의 위법성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이 답변 주실 수 있다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 주신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은 저희들이 한 60차례 45명 조사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장부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히 법에 따라 수사하고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듯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립공원 내 재난예·경보시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안을 보면 시설확충사업 중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의 경우는 평균 설치단가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800만 원대였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안의 설치단가는 이보다 대폭, 1200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 4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2015년도 본예산 때는 총 여섯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6대로 나누면 단가가 28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여섯 대 중 한 대는 100만 원짜리 소형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를 빼면 나머지가 다섯 대인데 다섯 대로 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해상도라든지 또는 정보제공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은데, 그렇게 치면 실제로 본예산은 3300만 원이고 지금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능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인데,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곧 장마철이라 올해는 현재 수준으로 보내야 하는데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국립공원에 미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이 전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없는 12곳하고 그렇게 굉장히…… 거의 55%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현황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이미 28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으로 13대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6대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미설치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야산하고 월출산을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고 나면 또 8개 중에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에 필요한 데가 있는지 더 찾아서 나중에 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2018년까지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달성이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국립공원관리공단 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산피해는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인명사고 역시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탐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각 학과별로 진로 가이드를 개발·보급을 해서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추경 필요성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학과 중심으로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진로지도 가이드 개발을 위한 비용은 20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부 부처의 많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홍보 관련된 부분이 가장 부족하고요, 뭘 책자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가이드를 활용한 진로지도 설명회 개최 등 애써 개발한 가이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문계 교수님들이 사업장 현황도 이공계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둡고 그래서 인문계 학과의 경우에 각 교수님들의 현장에 맞는 취업지원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이드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나 설명회 이런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예산이 보완이 된다는 건 더 효율성이 커진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더 보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활용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40개 학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램 개당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우수한 진로지도 가이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내역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발을 조금 줄이고 활용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활용도를 꼭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관련된 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5월 말 현재,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1, 2월 달에 위탁사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숫자가 있었지만 3, 4월 달에 괜찮다고 이렇게 봐도 6만 명이 증가한 36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인원에 관련된 추정예산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올해 내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올해 5월 말 현재 동사업 참여인원은 계획인원 30만 명 대비 32.8% 밖에…… 이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6만 명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정말 그 숫자에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실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들을 잘 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발굴을 하려면 지금 현재 사용을 했던 방법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이나 정말 취업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을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훨씬 더 옛날 처럼,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대상자 발굴뿐만 아니라 희망리본에 관련된 사업 대상자 발굴을 좀 더 합쳐서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6만 명이 꼭 달성이 되도록 저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업 대상자 발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추정예산을 통해서 통상 상담원 150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난 취업패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집행, 연말까지 사실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상담원들이 통상의 자세를 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물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조직이 인건비 추가로 150명 준 것을 플러스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수급자 중에서 또 과거에 희망리본에 몸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소위 외부기관도 좀 활용을 해서 급적이면 이번에 6만 명……

또 작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년 사업계획 5만 명이 추가돼서 11만 명이 늘었는데 늘은 11만 명 합쳐서 36만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보완할 때 참고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이기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심상정 위원**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이 그런 어떤 근로자들의 필요한 부분 또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심상정 위원** 몇 명이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번에 내년에 6030원이 되면 현재 14%의 영향률이 1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영향률로 약 340만 명 정도……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내지 700만이 영향권에 들 것 같아요. 이렇게 500만에서 700만이면 그 가족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의 4분의 1인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저는 사망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서 올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무슨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는 등, 뭐 충분히 올려야 된다는 것 해서 기대를 엄청나게 띄워 놓고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인상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경기불황 속에서 정부도 얘기했던,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했던 소득 주도 경제, 내수 활성화에 저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940만 명인데 골목시장에 나와서 자장면 사먹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너무 낮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지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데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저는 원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면 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장관께서 이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하면 그러면 다시 재심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좀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 내용을 보면 앞서 이석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을 때 제가 말씀을 잠깐 올렸듯이 여건을 놓고 보면 작년 지난해 7.2, 7.1% 올릴 때보다는 최저임금 인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면……

○**심상정 위원** 장관님,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부분을 각 부처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저임금의 격차 해소 부분 반영……

○**심상정 위원** 중소기업들을 핑계, 방패막이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러면 그로 인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구매력도 올리고 그리고 또 부담도 줄이고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소기업들 핑계만 대는 그런 정부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지요.

중소상공인들, 지역 골목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분들이 임금 올라가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하루 종일 손님 없어서 피가 마르는 게 더 고통입니다. 골목시장에 무슨 부자들이 가겠어요? 결국은 봉급생활자들이 가는데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뭐 여러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경제 실패에 따른 세수결손 추경이다, 메르스·가뭄 핑계 대는 꼼수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특히 예산집행 미비하거나 그동안에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여기다 끼워 넣으셨어요.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돈 있으면 두 가지, 하나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료인이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병원 비정규직……

지금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에 보면 고용재난지역을 도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재난지역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의료인이나 보건의료 노동자나 병원 비정규직 이런 광범위한 내수 산업 재해를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그게 메르스 대책이지요. 저희 정의당은 이것을 위해서 한 100억 원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예산이 적극적으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도 또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아까 여러 말씀을 장관께서 하시는 했지만 지금 15년도 추경예산안 중에 대부분이 추경예산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전면적인 어떤 평가나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예산안으로 넣으셨어요. 집행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과다라든지 또는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고용노동부 차원의 메르스 관련 사업……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중소·영세상공인을 위한 예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을 짤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아까 장하나 위원이 오토텍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을오토텍 해고가 아니라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전사 출신 50여 명 지금 기숙사에 그대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수사 중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폭력 건 가지고 노사 균형 맞춰 가지고 노노 싸움으로 돌리고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계속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편성 사업 내용에 보면 작년에 불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의 목적이 경제가 갑자기 침체를 해서 대량 실업의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으면 추경의 사유가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각각 사업들이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확보해주거나 또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상정 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고용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 개인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돼 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통보받은 게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가급적 주도록 해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숙박, 음식 또는 여행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호텔에도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매출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까지는 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해서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을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영세상공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보험의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기업 지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중소·영세상공인을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최저임금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소위 EITC나 이런 부분도 경제팀한테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토텍 부당노동의 건은 오늘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서 가급적 빠르게,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가 보니까 하수관거정비가 23군데,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9개소, 국립공원사업 89개소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가지고 실제 국민들에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전부 지방자치단체 돈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국립공원은 100% 국비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수관거하고 농어촌마을은 지방비……

○**최봉홍 위원** 지방비 보태야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방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지방비 확보해 가

지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확답하는 데만 이것 반영……

○**최봉홍 위원** 확답 받은 데만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토목공사라 하는 것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공사비도 덜 들고 하는 건데 전부 2016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노동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가 거의 지원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론 지원하시는 데 근본 방향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실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취업아카데미, K-Move 또 기능 지원해 주는 그런 모든 업체들이 실제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원금이 전부 줄줄 새고 있습니다. 100억이 나가 가지고 한 95억만 쓰여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실지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로스(loss) 돼 나가는 것이 영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내용면으로 따져 보면……

우선 학교를 한번 봅시다.

대학생이 1년에 4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것을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인원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육에 나가는 지원은 4만 명씩 줄어야 할 그 국고가 결국은 재단 이사장을 도와주는 식으로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결국 나라는 나라대로 예산은 부족해지고 학생은 학생대로 니트족만 양산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같은 데, 중소기업에 250만 원, 300만 원, 최저임금 가친가친하는 데, 그런 데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그래도 한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잘못된 우리 대학교육이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지원하는 데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지원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막연하게 그냥 취업률과 맞춰 가지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육비를 지원한

다, 실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기술 교육도 지금 카드제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카드 자체도 현금 도로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지고 목적대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과정에서도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권성동 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 또 배경이 메르스 대책하고 가뭄 이것을, 정부에서 두 가지를 맨 처음으로 꼽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니까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고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메르스와 가뭄인데, 이번에 우리 환경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은 또 가뭄과는 관계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어쨌습니까? 하수관거사업하고 국립공원 관련 예산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가뭄이 금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특히 영동지방도 그랬고 영서지방은 아직까지도 해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송수관로나 가압장 건설 또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상수 및 용수 공급 배수관로 및 가압장 건설, 울진군도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여러 등등이 있던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어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속초시 전체가 제한 급수 됐는데 고성군까지 연결하는, 한 11km만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작년 정기국회 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수관로 개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재정당국은 그게……

○**권성동 위원** 같은 논리로 못 해 주겠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서요, 안 들어갔고요.

하여튼 환노위에서 담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산당국에서 동의를 안 하는데 환노위에서 담는…… 작년에도 담았는데 결국 예결위 가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분하고 실제 내용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권성동 위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6030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항상 최저임금 결정하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이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이고 해서 결국은 고용노동부가 샌드위치 신세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번이 가장 인상률이 높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역대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뭐 임금 오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열의만 있으면, 기초 체력만 튼튼하면 이것보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영세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과연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또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 없다, 이번 임금 인상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

들일 만한 체력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격차 해소라는 박근혜정부의 철학을 담아내는 그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서 우리 최저임금 영향률이 인상하기 전 금년만 해도 14%대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030원이 되게 되면 약 18%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초유의, 영향률이 커지는……

○**권성동 위원**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12%잖아요, 현재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6030원이면 16%, 18%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도로서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2.1%, 영국 5.3, 미국 4.3 해서 2~5% 정도인데,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다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제도의 실효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실효성이 안 생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미만율을, 최저임금 미만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8.1%,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는 협약임금 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금년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영향률이, 지금 미준수율 11%, 12%, 내년 가면 이 부분을 얼마…… 최저임금 영향률은 18%로 커졌는데 대부분 현장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최저임금의 가장 한계에 있는

업종들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는 감독이랄지……

○권성동 위원 그런데 행정지도·계도 또 처벌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제 문제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동부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감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산정할 때 임금 외 숙식비 이런 것은 반영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숙박·숙식비, 숙식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산입 범위가 저희는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한 40% 정도는 숙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 숙식비에다가 최저임금 하나까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같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숙박비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이런 얘기 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지고 뭐 어찌고저찌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도 가보면,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근로자를 쓰거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외국인근로자한테 이렇게 임금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앞으로 해 나간다고 했고,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 할 때도 산입 범위에 대해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이인영 위원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우선 좀 사실 자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협약임금 인상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014년이 그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안 나타나요. 그리고 2015년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설사 협약임금 인상률이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올해 4.4%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소득분배 개선을 이거 반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2.1% 반영했는데 2013년에 2.7%, 2014년에 2.5%, 2015년에 2.5% 이렇게 반영했는데 올해 2.1%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진짜 격차 해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소득분배 개선율이. 이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뒤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아니, 제 질의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최저임금이 결정돼 나가는데 공익위원은 장관님하고 대통령께서 주로 임명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선임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관계 협상이고 어용 협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근로기준국장 어제 제가 결산소위 하면서 일찍 가시라고 배려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이 주안점을 두고 계속 이야기했던 격차 해소 그것은 실제로 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 들고 있고 협약임금 인상률도 줄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주 그냥 조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정부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서 나타난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 그런 비판·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최저임금 인상액을 놓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협약 인상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내년도의 협약 인상률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이 많은 현장에도 가보고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인영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가지요. 내년의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예상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인상률을 누적해 가지고 판단해 나가야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니까 작년·올해를……

○**이인영 위원**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적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작년·올해, 특히 금년도 인상률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고 저는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분 부분은 금년에 2.1로 돼 있는데 그게 협상조정분이라는 1.6%를 더 넣었습니다. 저는 이게 넓게 보면 소득 개선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인영 위원** 소득 개선분 2.1%를 반영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글썄, 그렇게 해 놓고 예년에 없는 협상조정분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이 협상조정분이란 내용이 생계비랄지 근로자 배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결국 소득분배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리고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이게 공익위원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상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사용자위원회에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인영 위원** 공익위원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신속협상구간에서 1.6% 반영한 것이요, 그게 기계적인 중간치지 그게 어떻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게 넓은 의미의 소득분배율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신속협상구간에 있어서 중간치를 반영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 뜻이 생계비와 근로자 배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격차 해소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에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개선비율 개선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면 뭐 하러 4개의 항목을 나열해서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에는……

○**이인영 위원** 작년에는 명백하게 소득분배 개선분을 2.5% 반영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인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2.1% 반영했다고 얘기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소득분배……

○이인영 위원 작년에도 조정분이 0.1% 있었는데 올해 1.6%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 조정분이라는 의미가 격차 해소분의 큰 범주에 들어간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장관님이 매우 인위적으로, 편의적으로 개념 규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장관님한테 자기들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장관님이 판단하시고 진짜 소신껏 말씀하셨던 격차 해소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격차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늘어나는 것을 따라잡는 만큼 격차 해소분이 반영돼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초유의 일 이런 것들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8.1%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역대 정권이 아니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 이명박정부 때는 평균 해서 5.2%였고 격차 해소분을 넣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7.2, 7.1, 이번에 8.1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잘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게 잘 해 나가는 방향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그 격차 해소분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반영돼서 나타나니까 말씀하신 만큼 비례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영향률도 보고 단계적으로……

○이인영 위원 아니,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추세에 비춰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에 7.1% 할 때는 공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7.1% 할 때는 재작년의 7.2% 했던 것에 비해서 거꾸로 간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

로 협약 인상률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인영 위원 서로가 공언하고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그 기대만큼 비례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게 맞는 방향 아니냐 이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성패하고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실제로 6월 달까지 2015년도 진도율이 30%도 안 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일부는 대답하셨는데 마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대간상생고용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시행령 보안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단 시일 내……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해 놓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것을 왜 지금 다시 이렇게 추경으로 또 제출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세대간상생지원금은 노사정 대타협 때 그 안이 대두돼서 공감을 이뤘고 이 부분에 저희들 정부 내의, 특히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인 청년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했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법령 준비가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 되실 것 같아요, 시행령 개정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8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 방침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추경을 해 주시면 추경의 준비와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거꾸로는 못 하는 것 아

시지요?

그게 사실 법령적 근거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실업크레딧도 법령을 먼저 정비해 놓고 해야 할 문제인데 예산부터 태워 가지고 생긴 문제들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실업크레딧도 저희들은 빨리 이렇게 돼서 법령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미 심의부터 하고 나중에 법이 들어왔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7월에……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걸 왜 자꾸 변명, 마치 맞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7월에 여야 간에 실업크레딧은 합의가 됐고 그 부분이 예산과 법령 개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법령 개정이 좀 늦어지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질의로 대신하겠는데요.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령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 그런 게 6월까지 놓고 봐서 최소한 50% 이상은 진도가 나갔어야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해도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려하신 부분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K-Move 같은 경우는 거점대학에서 하고 현재도 이미 모집해서 된 부분들이 금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그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뒷받침해서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동의하기 어려운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아까 강원도 쪽의 몇 군데 지역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지역에 어떤 정도가 추가로 반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에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한정에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장하나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이자스민 위원님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김영주	심상정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이자스민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정애	

○청가 위원(2인)

김용남 은수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원순환국장	홍정기		
기후대기정책관	최홍진		
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환경정책관	박광석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제협력관	박천규		
감사관	이경용		
화학물질안전원장	김규관		
기상청			
청장	고운화		
기획조정관	이우진		
예보국장	양진관		
관측기반국장	육명렬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성균		
기획재정담당관	신도식		
지진화산정책과장	유용규		
기후정책과장	박훈동		
운영지원과장	김영미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이준모		
기상레이더센터장	전정규		
항공기상청장	박정호		
국립기상과학관	조천호		
기후연구과장	김신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차관	고영선
기획조정실장	한창훈
고용정책실장	이재홍
정책기획관	김종열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국제협력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	정형우
고용서비스정책관	권기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노사협력정책과장	정경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 발의)

(2015. 6. 29 나성린·김광진·이한성·김광림·주영순·서용교·강석호·안홍준·김을동·홍지만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회부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주승용·이개호·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김관영 의원 발의)

7월 1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희국·황주홍·이노근·이종훈·양창영·권은희·조원진·김태원·이한성·이완영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이명수·정희수·김기선·김용익·
신경림·류지영·김재원·이종진·김정록·
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양창영·박맹우·이한성·황주홍·
김기준·김종태·강기윤·이종배·민현주·
황영철·최봉홍 의원 발의)

7월 6일 회부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15. 7. 6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5. 7. 6 이상직·이개호·신기남·박광온·
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
이석현·민병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5. 7. 6 김기식·김기준·김민기·김성주·
김영록·남인순·민병두·박수현·박홍근·
배재정·신경민·안규백·우상호·우원식·
유은혜·윤관석·이목희·이인영·진성준·
한명숙·홍익표·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우남·홍문표·유성엽·김영록·
강창일·최규성·장하나·강기정·이개호·
김종태·황주홍·박민수 의원 발의)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5. 7. 3 김관영·김윤덕·박광온·박지원·
유성엽·유인태·이개호·이상직·이춘석·
전정희·주승용·최규성 의원 발의)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황주홍·유성엽·이개호·이윤석·
김광진·김성곤·박민수·박주선·문병호·
부좌현·이한성·김우남·정세균·서영교·
김승남·박혜자·김영록·홍의락·신정훈·
임내현·박지원·주승용·유인태·이춘석·
장병완·유은혜·박수현·김희국·홍영표·
김영환·박기춘·우윤근·전해철·조정식·

김성주·노웅래·박남춘·신기남·김윤덕·
이언주·주영순·박대출·최원식·조경태·
박상은·홍문표·양창영·신동우·김정록·
유승우·백군기·노영민·정용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